

청와대 문서·북 접촉내용 사전 열람...최순실, 대통령 행세했다

외교 문건 등 열람권 없이도 결재권자처럼...정호성 거쳐 최씨 측에 넘어가

최씨 국정 농단 실상

헌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서를 사전에 챙겨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문서를 열람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공식 결재권자처럼 마음대로 다룬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과의 비밀 접촉 내용,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까지 포함된 최씨의 국정 농단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의 태블릿PC 속 문서 200여건을 대상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미완성본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두루 망라됐다.

검찰은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문서 작성자, 중간 결재자 등을 조사해 해당 문건들이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형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손을 거쳐 최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에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정 씨에게 문서들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성 파일에는 문서 유출에 관한 대화 외에도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 개입 관여 정도를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문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다.

지시 배경·취지와 관련, 그는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었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최씨에게 자료를 보내주도록 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두 건의 최종 문서가 있지만 이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 부처의 문서를 보고받은 것이라 법이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 청구 때는 혐의란에 공무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적었으나 구속영장 청구 때는 공무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씨 측에 외교·안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를 다량으로 유출했다고 사실상 시인했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인기 중 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최씨 측에 문서를 내주도록 한 경위와 의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 최씨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체포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 APEC 불참 '최씨 파문' 외교까지 불똥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9~20일 페루 리마)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9월에 이미 박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가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을 이미 결정했다고 밝힌 9월에는 이미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월 20일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인사는 물론 청와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씨와 안중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파문이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등 안보 상황의 시급성을 대통령 불참 사유로 언급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북핵 외교의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을 대북제재·압박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를 불참할 정도로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박 대통령 대신 누가 참석할지를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도 최순실 파문이 우리 외교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주목받는 박 대통령의 다음 외교 일정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3국 정상회담이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장악력과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박 대통령은 한일중3국 정상회담의 참석을 통해 '외교무대에서 외치를 책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중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한국 변수로 물 건너가거나,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외교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성각 전 한콘진 원장 체포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송성각(58) 전 한콘텐츠진흥원장을 지난 7일 밤 9시 40분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자택에서 체포된 송 전 원장은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이다.

송 전 원장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이자 최씨외도 가까운 사이로 거론되는 광고감독 차은택(47) 씨의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송씨가 차씨의 광고업계 선배로 알려졌다.

한편 차은택씨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대상에 오른 차씨는 8일까지도 검찰 측에 정확한 귀국 일시나 출석 날짜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게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35억 특혜 지원' 의혹 본격 수사

삼성·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헌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35억 특혜 지원'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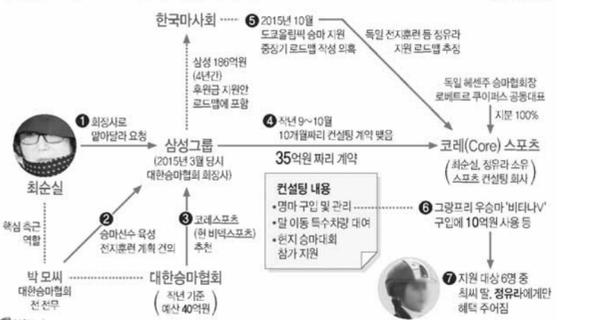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한승마협회장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4)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무실 및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승마협회 업무 추진 내역과 지원비 집행 실적 등 각종 문서, 개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지원 명목으로 불법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지난 9~10월께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텍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 유로

삼성, 코레스포츠 특혜 지원 의혹 개요



(약 35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지금은 현지에서 정씨의 딸 구입·관리, 딸 이동 차량 대여,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전지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대로 알려진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 구입에도 쓰였다.

코레스포츠는 당시 승마 훈련장이 있던

해선주의 로베르 쿠이퍼스 승마협회장이 공동대표로 등재됐으나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다.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인 작년 11월에는 비텍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박상진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을 협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경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사장을 역임한 영남대에서 교수 170여 명이 8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영남대 교수 100명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사장을 역임한 영남대에서 교수들이 8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을 걱정하는 영남대 교수 일동'은 "박 대통령은 통치 능력을 상실했고, 국가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 위기 자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영남대는 한때 박 대통령이 재단이사장과 이사로 몸담았던 학교다"며 "당시 최태민 일가의 부정부

비리로 대학이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본 기억이 있는 우리는 이번 사태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에는 전일교원 800여명 가운데 110여명, 비정규교수 260여명 가운데 60여명이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1980년 4월부터 1988년까지 영남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하다가 입시 부정 사건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충행기자 golee@연합뉴스

제8회 심진쇄란 승전지 해상승례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 8시 ~ 오후 5시
충무공 이순신 계독 승전해역을 우리 군함을 타고 순례하는 전국의 참가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안 천혜의 절경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상: 전 국민, 초등학교 이상 200명 (7회 참가자 제외)
신청마감: 2016년 11월 11일까지
신청처: 신청자 추첨 신청 (지역별, 가족·단체별 고려, 인원초과 시 예비후보 신청)
문의처: (052)210-6102 ~ 4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상담문의: 0611247-7700 / 0621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틀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 062. 269-011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